

붉은 악마와 6·25 그리고 분단문학

글 강진호 문학평론가 · 성신여대 교수

6월에 이 땅에서 전개된 ‘승리의 행진’은 ‘충격’이었다. 축구 경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축구를 둘러싼 이 모든 현상, 월드컵 현상, 붉은 악마 현상, 그것들이 표현해 주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나에게 ‘충격’이라는 정서로 전달되었다는 얘기다.

월드컵 현상은 물론 ‘뱀비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붉은 악마 현상’은 섹스미의 현상이라고 느껴졌다. 키에 밀리고 체력에 밀리고 거대한 나라들과 맞붙어서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는 나라의 뿌리 깊은 열패감, 분단의 구조와 냉전 이데올로기의 폐해 속에서 굳어진 분열주의, 패배주의, 냉소주의 이런 것들이 녹아 내리는 경험의 현장. 1945년 해방 이후 우리 민족이 지역과 이념과 종파를 떠나 그렇듯 하나로 뭉쳐 열광한 적이 있었는가? 1980년대와 같은 저항의 표정이 아니라 신명난 표정으로, 신나는 국관의 모습으로 말이다. 그 순간만은 응원가사에서 표현되었듯이, ‘모두 다 힘을 모아 하나로 뭉치는’ 분위기였다.

대한민국 전역을 뒤덮은 ‘붉은’ 물결 또한 인상적이었다. ‘레드 신드롬’은 우리 민족의 집단무의식으로 자리하고 있던 레드 콤플렉스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응원의 열기를 넘어서는 또 다른 사회사적 의

미를 갖는다. ‘붉은 물결’은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갈린 이후 불온시되던 색깔이 아니었던가. ‘붉은색’이 공산혁명의 상징색이 되면서부터 자유진영에서는 거부 대상이 되었고, 더구나 우리는 동족 상잔의 전쟁을 겪은 까닭에 그러한 편견은 더욱 심했었다. 그런데 지금, 6월의 한복판에서 그 붉은 물결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 6월은 52년 전 이 땅을 동족상잔의 붉은 피로 물들여놓았던 전쟁의 트라우마가 각인된 달이고, 게다가 아직도 우리는 전쟁과 분단이 만들어놓은 구조의 사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 아닌가. ‘붉은 악마’의 응원을 지켜보면, 몇몇 일간지에서 ‘붉은색’에 대해서 논평한 짧은 글들은 그런 아이러니한 현실을 표현한 말일 것이다. 전국에 넘실대는 붉은 셔츠의 물결을 보고, “이제는 우리도 붉은색을 아름다운 색깔 중의 하나로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겼다”는 어느 신문의 사설은 색깔의 선택에서조차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비극적 현실을 표현한 말로 이해된다.

문학을 하는 입장에서조차 이러한 사회·문화적 현상은 매우 의미 있는 코드로 이해된다. 최근 문학은 보는 시각에 따라 각기 다양한 특징으로 드러나겠지만, 서로간의 ‘소통 부재’가 공통의 코드가 되다시피 했다. 여기서 소

‘붉은 악마 현상’은 나에게서는 씻김굿의 현장이라고 느껴졌다. ‘레드 신드롬’은 우리 민족의 집단무의식으로 자리하고 있던 레드 콤플렉스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응원의 열기를 넘어서는 또 다른 사회사적 의미를 갖는다.

통이란 작가와 작가 사이의 소통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와 개인, 인물과 환경, 작가와 평론가, 주체와 타자 등에게서 보이는 전반의 소통 부재를 의미한다. 최근 문학에서는 ‘개인’만 있을 뿐이지 그를 둘러싼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다. 주체의 욕망만이 일방적으로 표현되고, 그러한 욕망을 굴절시키고, 조장하고, 왜곡하는 환경과 집단에 대한 탐구가 없다. 개인의 은밀한 욕망과 그 충족 과정을 문제삼은 소설의 경우, 그 동안 금기시되었던 삶의 한 측면을 천착하고 있다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우리’와는 거리가 먼 개인적 욕망의 문제로 귀결되기 일쑤이다. 욕망이 산출되는 환경과 집단의 특성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까닭에 작품 자체가 지극히 미분화되고 또 전문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문학은 이제 ‘사적(私的)’인 영역이 되고 만 것이다.

월드컵의 열기는 이렇듯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개인들이, 사실은 그 이면에 공동체적인 열망을 강렬하게 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나’는 ‘우리’라는 큰 유기체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의 확인과 표현이라고나 할까.

현대문학의 중심부 차지하고 있는 분단문학

‘나’로부터 ‘우리’의 문제로 시선을 돌리면, 거기에는

잇혀져 있는, 그러나 잇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6월’ 하면 무의식적 강박처럼 떠오르는 ‘6·25와 분단 현실’이 바로 그러한 문제의 하나일 것이다.

최근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분단 현실에 대한 탐구는 현대문학의 중요한 관심사였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작품의 양이나 질에서 분단문학은 현대문학의 중심을 차지하고, 사실상 분단 현실에서 쓰여진 모든 작품은 분단의 규정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전쟁 직후의 직접적이고 단편적인 체험을 고백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소재와 영역을 넓히면서 분단문학이 다양하게 쓰여진 것은 1960년대 이후였고, 그것이 1970년대에 들어서는 일대 장관을 이룬다. 박경리, 이호철, 최인훈 등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중견 작가들이 왕성하게 분단 현실을 파고들었고, 1960년대 이후 등단한 김원일, 윤홍길, 홍성원, 문순태, 황석영, 이문구, 조정래, 전상국, 이동하, 신상용, 현기영, 박완서, 한승원 등의 신예들까지 가세하면서 분단문학은 민족문학의 중심으로 우뚝히 성장하여 왔다. 1980년대 분단문학의 화려한 개화는 이러한 성과에 힘입은 바 크다.

분단문학을 언급하면서 먼저 생각할 것은 전후 현대문학을 근본에서 규정한 반공 이데올로기의 문제이다. 지난 50년 동안 정치권의 악용으로 우리 사회는 심한 적색 공포증에 시달렸다. 전세계적으로 몰아친 전후의 냉전의

식에 힘입어 역대 정권들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의도적으로 조장하여 정권의 취약한 지지기반을 만회하여 왔는데, 이 과정에서 정권들은 특히 분단 현실과 북한의 호전성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세뇌시켜 흑이 아니면 백이라는 극단의 부정과 양가치적(兩價值的) 사고를 확산시켜 놓았다. 남한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 공산주의 집단이 존재하고 자칫 방심했다가는 언제든지 6·25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강요된 경계심은, 민족의 생존이라는 최상의 가치를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비롯한 어떠한 가치도 희생될 수 있다는 금기와 독선의 신화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전후 현대문학의 전개 과정이란 이 분단된 현실과 대면하면서 각 개인들의 마음속에 각인된 양가치적 사고를 척결하는 지난한 투쟁의 역사가 아니었던가.

문학이란 본디 인간 정신의 자유를 표상하는 양식이고 억압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문학은 삶의 깊숙한 이면을 파헤치면서 존재의 해방과 자유를 추구하며 추상적 이념보다는 일상의 실제적 국면들에 주목한다. 작가의 눈에는 평범한 일상도 비범하게 인식되게 마련이고, 그래서 문학인들은 우리 일상 속에 스며 있는 분단의 아픔과 냉전 이데올로기의 허구를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포착하여 왔다.

종전 직후인 1954년에 『서울신문』에 연재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일으킨 정비석의 「자유부인」은 반공 이데올로기의 맹위를 실감케 한 첫 사건이었다. 다분히 통속적인 구성과 인물로 되어 있는 이 작품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은 당시 정권의 방패와도 같았던 반공 이데올로기 때문이었다. 작품의 내용은 사실 간단하다. 저명한 국어학자의 아내인 오선영은 종전 직후 사회 전반에 만연된 자유주의적 분위기에 휩쓸려 들면서 춤바람이 나고 사교계에 진출하면서 자연스럽게 고관 부인들과 어울린다. 이 과정에서 남편들의 정치적 비리가

화제에 오르고, 또 선영의 오빠이자 국회의원인 오병현의 정치적 무능과 선거 부정사태가 소개된다. 작품은 진보적인 입장에 바탕을 둔 것도, 그렇다고 반사회적인 주장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정부 관료와 고관 부인들의 비리를 고발하듯이 그려놓았다는 것이 빌미가 되어 작가가 치안국에 소환되는 어이없는 결과를 불러오고, “중공군 40만 명보다 더 무서운 해독을 끼치는 소설”이자 동시에 “북괴의 사주로 남한의 부패상을 살살이 파헤치는 이적소설”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지금 돌아보면 하나의 해프닝일 수밖에 없는 일이었지만 일개 통속소설에까지 이렇듯 이적과 용공의 혐의를 내리 씌운 것은, 최소한의 비판조차 허용할 수 없었던 당대 정권의 무능을 스스로 폭로하고, 전쟁 직후 국민들의 가슴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던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통치의 도구로 이용한 비열한 작태였음을 확인시켜 준다.

분단 후 냉전 이데올로기와의 처절한 대결

1965년 『현대문학』 3월호에 발표된 뒤 2개월 후인 5월 초 북한의 기관지 『통일전선』에 전재됨으로써 작가가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를 불러왔던 ‘〈분지(糞地)〉 필화사건’ 역시 창외와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시대가 낳은 불행한 사건이었다. 한 가정의 비극을 통해서 사회의 전도된 가치관을 문제삼고 그것을 민족 주체성의 입장에서 바로 잡으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것은 작가의 능숙한 입담과 날카로운 풍자 정신이다. 홍길동의 10대 손이자 단군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걸핏하면 내세우는 주인공 홍만수는 불의에 항거하는 의협심과 민족의 오랜 전통을 이어받은 인물로 제시된다. 그는 전통과 권위를 존중하고 의협심이 강한 인물로 그려지지만, 사실은 좀 모자라는 사람이다. 미군 상사의 부인

일개 통속소설에 불과했던 「자유부인」을 “중공군 40만 명보다 더 무서운 해독을 끼치는 소설”이라고 용공혐의를 씌운 것을 비롯, 작가가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를 불러왔던 ‘분지(糞地) 필화사건’은 창의와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시대가 낳은 불행한 사건이었다.

을 유인하여 그녀의 음부를 보고자 하는 것이나 미국 여인들의 배꼽에 태극기를 꼽겠다는 다짐 등은 모두 상식에서 벗어난 기행들이고, 이 엉뚱한 행동들을 통해서 작가는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미국 중심의 왜곡된 가치관을 비판한다. 미국 여인의 음부를 보고자 하는 것은 미군들이 한국 여자를 학대하는 근본 원인을 살피겠다는 것이고, 미국 여인의 배꼽에 태극기를 꼽겠다는 것은 민족의 주체성을 만방에 떨치겠다는 의도였던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품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의 잡지에 전재되고, 또 미국을 모욕하고 반미를 선동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작가가 분단의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비극을 불러온다. “반미감정을 조성, 격화시켜(…) 북괴의 대남 적화전략의 상투적 활동에 동조”(검찰의 공소장)했다는 것. 과연 ‘용공 이적죄’를 범한 것인지는 의문이지만, 북한을 경쟁적으로 의식하던 당대 현실에서 쉽게 용납될 수 없었던 것이다. 2년 2개월에 걸친 조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남정현은 진보적 성격과 창의력을 박탈당했고 이후 이렇다 할 작품을 쓰지 못한 채 문학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는 비운의 희생자로 전락한다. 한 재능 있는 작가가 냉전의 사슬을 뚫고 성장하기엔 분단의 천형이 너무 깊고 거대했던 것. 하지만 목숨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제기한 남정현의 문제의식은 이후 민족사의 전개과정에서 미국을 새롭게 인식하고 민족문학을 한

단계 진전시킨 계기를 제공했다는 사실은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공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얼마나 완강하게 억압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가 1994년 4월에 고발된 이래 아직도 종결되지 않은 「태백산맥」 필화사건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과 8개 우익단체들이 작가 조정래와 모 출판사 사장을 국가보안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고 그에 따라 경찰청 보안국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이 사건은 앞의 경우와는 달리 보수 우익단체들이 대거 연합하여 작품에 제재를 가하려 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구국총동맹, 한국전쟁참전총동맹, 대한파월유공전우회 등등의 단체가 주장한 것은, “소설 「태백산맥」은 한국 현대사를 왜곡, 대한민국 건국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거나 기여한 명예를 손상시키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훼손시켰을 뿐 아니라 북한 김일성 정권에 정통성을 부여하며 공산주의 혁명사상을 조장하였고, 반미 감정을 고취시켜 대한민국을 미국 식민지로 인식시켰기에 피고발인 등을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고발한다”는 것. 여기에 덧붙여 경찰은, 이승만 정권을 친미피괴정부로, 빨치산을 인민해방전사로, 6·25를 조국해방전쟁으로 표현한 부분 등이 이적성이 짙다는 견해를 첨부하였다.



「태백산맥」

「태백산맥」에 대해서 이렇듯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반감을 표시했던 것은 이 작품이 반공 이데올로기와는 상치되는 과격적 시각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백산맥」은 빨치산의 진실을 집요하게 천착했고, 해방 전후의 역사를 민중의 입장에서 재구성하여 6·25를 새롭게 조명하려 했다. 민중 중심의 시각과 역사주의적 입장을 통해서 이 작품은 기존의 지배적인 시각을 부정하고 현대사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다.

이를테면, 사회과학계의 연구와 여러 증언을 통해서 확인되듯이 6·25가 발발하게 된 이유는 딱히 북한의 적화야욕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전쟁이 “나라를 통일하고 변혁하려는 내전적이며 혁명적인 전쟁”이라고 규정하는데, 이는 한국전쟁을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외부침략(foreign aggression)으로 파악하는 보수적 관점과 정면으로 대립된다. 커밍스가 한국전쟁을 외침이 아닌 내전적이며 혁명적인 전쟁으로 본 것은 6·25가 남한에서 토지 문제를 위시한 사회혁명과 외세로부터의 독립을 수반하는 통일을 추구하

는 움직임과 관계되어 있었고, 또 그러한 노력이 가능했던 사회적 기반은 단순히 북한의 무력이 아니라 남한 사회에 잠재해 있던 좌익에 대한 광범한 지지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을 공산화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대한 지지기반이 남한 사회 내부에 존재했고, 또 남한 사회가 1945~1946년과 같은 사회혁명을 지지하는 사회적 조건과 정치세력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북의 인민군이 남한을 점령하고 있던 3개월간에 북은 이러한 남한 사회 내부의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인민위원회의 복원과 토지개혁 등과 같은 사회혁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외침이 아닌 내전적인 혁명적 전쟁이라는 게 그의 견해였다.

조정래는 이러한 진보적 시각을 수용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우익 인사들은 자신의 양가치적 사고를 기준으로 작가를 협박하고 압력을 되풀이했던 것이다. 정부 측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친미 용공이라는 죄목을 붙인 것인데, 이는 곧 서로 다른 시각과 가치를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폭력파도 같은 행동이었다.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새는 좌와 우의 날개로 날아야 한다. 한 나라가 민주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은 서로 다른 가치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다원적 태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체의 일방적 시각만을 강요할 때 타자는 고유의 가치를 상실한 채 사물화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 문학은 분단 이래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억압해 온 냉전 이데올로기와 치열한 대결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많은 작가들이 희생되었고, 또 잠시나마 문학이 위축되는 곤경을 겪기도 했으나,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념적 색맹에서 벗어나 역사와 사회를 보는 한층 성숙하고 합리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현재는 단순한 과거의 집적물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중첩되어 있

는 복합적인 구성물이고, 분단은 그 중심 요소를 형성한다. 오늘의 문학이 다시 문학으로서의 위엄을 찾기 위해서는 이 복합적 요인에 대한 천착을 전제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6·25를 맞는 시점에서 생각해 본 우리 문학의 당면 과제인 것이다.

‘나’와 ‘너’를 넘어서 ‘우리’에 대한 열망

지난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문단에는 ‘나’와 ‘너’를 넘어서는 ‘우리’가 있었다. ‘우리’ 속에는 삶과 현실, 사유와 존재, 문학과 현실의 일치가 있었고, 또 그것을 위해 작가들은 힘을 모았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존재와 사유가 분리되고 ‘우리’는 고립된 ‘나’의 존재로 전락하였다. 이제 ‘우리’를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미망에 사로잡힌 것이 되었고, ‘우리’는 화려한 외양과는 거리가 먼 텅 빈 껍질로 탈바꿈했다. 게다가, 이제는 ‘우리’라는 말에서 집단과 전체를 보고, 폭력성을 읽어 내기도 한다. 최근 ‘붉은 악마’가 보여준 집단적 열기의 다른 한편에 이러한 부정성을 읽어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언급했듯이 고립된 ‘나’의 이면에 놓여 있는 ‘우리’에 대한 열망 때문일 것이다.

6·25를 맞아서 분단문학을 다시금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우리’에 대한 열망과 관계될 것이다. 물론, 6·25와 분단은 ‘우리’를 구성하는 한 개의 요인에 불과하다. 하지만 ‘우리’가 사라지고 대신에 ‘나’만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분단 문제’는 ‘나’를 다시금 ‘우리’로 승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매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존재는 사유를 구속하게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는 ‘나’만의 성채에 안주하는 것은 존재의 상황을 외면한 사상누각과도 같은 것이다.

분단 반세기를 경과하면서 한층 두꺼워진 단절은 쉽게 해소될 수는 없을 것이다. 반세기에 걸친 분단의 역사는 여전히 우리의 정상적인 삶을 가로막는 완고한 벽과도 같다. 남북한 사이의 왕래가 빈번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통일은 국군이 평양의 주석궁에 탱크를 진주시킬 때 완성된다”는 전율할 냉전논리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역시 ‘우리’를 규정하는 존재의 지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구나, 통일이란 민족 성원 모두가 지금보다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에 대한 열망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중국의 목적지는 통일 그 자체가 아니다. 분단을 극복한다는 것은 통일이 된 이후까지를 염두에 두는 것이고, 그것은 현재 우리를 질곡하는 여러 요소들을 제거하는 인간해방의 지난한 도정인 것이다. 우리 내부의 냉전 이데올로기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과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냉전 이데올로기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병들게 했고, 북한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원천적으로 가로막아 왔다. 또한 그것은 우리와는 다른 타자에 대한 배려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화해와 공생의 논리와도 거리가 멀다.

‘붉은 악마’로 촉발된 열기가, 무의식처럼 우리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이러한 편견을 일소하고, ‘나’와 ‘너’를 넘어서 ‘우리’에 대한 관심으로 승화된다면 월드컵은 후세에 민족사의 중요한 전기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열기가 남한을 벗어나 전 한반도로 확대된다면, 분단의 완고한 벽 또한 균열될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